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전시관 리노베이션 관련 사례조사

2025. 12. 2. [화] – 12. 7. [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출장 배경 및 목적

- (배 경)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이하 GKEDC)를 운영 중이며, 국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시, 국제협력, 교육을 수행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신탁기금과 연계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
 - 특히 ‘글로벌지식교류플랫폼’이라는 GKEDC의 미래지향적 비전 하, 기후변화·디지털전환·경제사회발전 등 글로벌 아젠다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전시관 콘텐츠에도 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추진 계획
- (목 적) ▲국제기구 내 한국 신탁기금 연계 프로젝트 현황파악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해외 전시관 사례조사를 통한 전시관 리노베이션 관련 시사점* 도출

* 인터랙티브 전시기법, 학예연구기획 및 공간 구성 등

2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25년 12월 2일(화) ~ 7일(일)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 장 지) 미국 워싱턴 D.C.
- (출 장 자) 총 2인

#	성 명	소속 및 직위
1	김수빈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 연구원
2	유민지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전시기획팀 연구원

- (활동사항) ▲국제기구 협력사업 관계자 면담, ▲전시관 사례조사
 - WB, IDB를 중심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기구 내 한국 신탁기금 연계 프로젝트 현황파악 및 협력사업의 발판 마련
 - 역사와 글로벌 아젠다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 사례조사를 통해 학예 연구, 전시 기획 및 공간 구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출장 일정

☐ 주요 일정

날짜	시간	활동사항	비 고
12/2 (화)	10:15-09:50	인천 출발 → 워싱턴 도착	KE 093
	14:00-17:00	스토리텔링 전시 기법 사례조사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12/3 (수)	10:00-12:00	음성인식 기반 체험 전시 사례조사 (플래닛 워드)	
	13:00-14:00	WB KWPF 신규 협력사업 논의	
	17:00-18:00	IDB Invest 후속 협력사업 논의	
12/4 (목)	10:00-12:00	비해설·자율 감상형 전시 기법 사례조사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13:00-14:30	IDB 한국신탁기금 담당자 면담	
	15:00-16:00	인물 중심 전시 사례조사 (미국 의회의사당 도서관)	
12/5 (금)	10:00-11:30	WB 한국신탁기금 담당자 면담	
	13:30-15:00	커뮤니티 참여형 전시 공간 벤치마킹 (아프리카 아메리칸 박물관)	
	15:30-17:00	인터랙티브 체험 전시 기법 사례조사 (국립 자연사 박물관)	
12/6(토) ~12/7(일)	11:50-17:40 (+1)	워싱턴 출발 → 인천 도착	KE 094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면담

1. WB KWPf 신규 협력사업 논의

□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3:00-14:00

□ (장 소) WB HQ, MC 7-100

□ (참 석 자) 조범철 박사(WB 교통)

□ 주요 논의내용

○ WB Academy 사업 소개

- WB는 기존 단기 중심의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1년간 매월 교육을 제공하는 장기·정규 프로그램(WB Academy)을 도시·교통·젠더 등 전 분야로 확대 추진 중

- 참여 대상은 개도국의 정책관급 또는 경력 사무관급으로, 동일한 인원이 코호트를 구성해 연간 학습·네트워킹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

- 현재 운영 중인 e-모빌리티 사업*을 예로 들자면, 한국, 세네갈, 콜롬비아 등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학습과 웨비나 기반 교육을 병행하는 구조

* 2025년 5월 서울에서 런칭, 약 10개국에서 40명 참가

-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에서는 참가국 현실에 부합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유망 과제는 WB 관련 부서에서 내부 연구 과제로 발전시키고 일부는 대출사업으로 연계

- 현재 e-모빌리티 사업 외에도 대형 인프라 및 지역통합 이슈와 연결되는 지역·연결성(Regional Connectivity) 주제의 신규 아카데미 사업* 추진을 검토 중

* 해당 사업은 KDI GKEDC, 코레일 등 한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KWPf 사업제안서 제출 완료

- 한국 기관들은 연수·교류 프로그램에는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대출사업으로의 실질적 연결은 제한적인 사례가 많음.

- 이러한 점에서 Academy 사업에 한국 유관기관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참가국들이 한국 기술·제도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WB 대출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기대

2. IDB Invest 후속 협력사업 논의

-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7:00-18:00
- (장 소) IDB Invest HQ, 04 B0405
- (참 석 자) Carlos Eduardo Narvaez 국장, David Brogeras 팀장, 이재승 컨설턴트(이상 IDB Invest)
- 주요 논의내용
 - 차년도 KTIP 사업계획 공유
 - 금년도 KTIP 사례를 바탕으로 반복 가능하고 구조화된 프로그램 중심의 KDI GKEDC-IDB Invest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
 - 차년도 KTIP의 주제는 제조업(Manufacturing)이며, 다음 세 가지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 예정
 - 첫째,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으로, 한국의 제조업 발전 경험과 관점을 반영한 콘텐츠를 포함
 - 둘째, LAC 제조업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운영 이슈 및 디지털 솔루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라운드 테이블을 추진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
 - 셋째, 제 3회 KTIP 연수 프로그램 추진 예정
 - 다만 제조업의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적합한 참가자 모집 전략에 대한 검토 필요
 - 재원은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KTIP을 포함해 1~2개의 신규 TC 사업을 신청하여 건당 최대 50만 달러, 연간 총 70만 ~100만 달러 수준의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함.
 - TC 승인 시점은 차년도 6월 이전을 목표로 하며, 연수 프로그램은 금년도와 유사하게 9월 중순~10월 중순 추진을 잠정 검토 중. 다만 제조업 관련 주요 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KDI GKEDC-IDB Invest 협업방안 논의

- IDB Invest는 CJ Selecta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대기업과의 현지 협력에는 한국 본사의 고위급 의사결정이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함. 이에 따라 한국 대기업 임원급과의 접촉 가능성을 문의

* CJ제일제당의 브라질 자회사로 동물 사료 및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단백 소재인 농축대두단백(SPC) 분야 세계 1위 기업

- KDI는 기관 특성상 공공부문 및 유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대기업 임원급과 직접 연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
- 대기업 임원급 접근이 최적의 방식인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하, FOMEK 소속 중견기업이 협력 대상군으로 현실적이고 유의미할 수 있음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조업 분야에서 LAC 진출 또는 시장 탐색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 리스트 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기업에 구체적 협력 이익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가능

○ K-LAC 비즈니스 서밋(25.10.27.~28.) 관련 내용 공유

- 서밋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IDB그룹 간 AI 기반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고자 하는 고위급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서울 AI 허브** 설립 등을 포함

*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IDB 총재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등을 면담하고, 한-IDB 패키지 의향서(LOI·Letter of Intent)에 서명했으며, AI·디지털 전환, 에너지, 핵심 광물, 인프라, 인재 이동(talent mobility)를 핵심 협력분야로 설정

** AI 허브는 개소 시점은 미확정이나, 한국의 기술 전문성과 LAC 지역 개발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농업 비즈니스, 에너지 공급, 식량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통합 지원 예정

- 해당 이니셔티브는 산업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며, 관련된 협업 아이디어를 지속 공유하기로 함.

3. IDB 한국신탁기금 담당자 면담

□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3:00-14:30

□ (장 소) IDB HQ, 5층 공용 공간

□ (참 석 자) 황기정 서기관(IDB Invest)

□ 주요 논의내용

○ 한국신탁기금 운영내용 공유

- 투자·회수 중심의 일반 펀드와 달리, 사업 추진을 위한 그랜트 성격의 자금으로, 그랜트 지원이 결합될 경우 중남미 기업 대상의 컨설팅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검토한 사업에서 한국 컴포넌트가 포함되는 비중이 예상보다 낮고, 콘텐츠가 피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의식도 있어 한국 파트너를 조기에 매칭하고 콘텐츠를 심화할 필요 제기
- 관련하여, GKEDC는 디지털전환과 기후를 핵심 축으로, RFP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크로스섹터 주제를 전략적으로 프레이밍하여, 한국 기업·기관과의 매칭 및 논의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 협력 가능 분야 및 진행 중인 사업 공유

- (①기후변화 리스크) 금융권 전반에서 기후변화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중남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컨설팅 및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 중

* 규제 강화, 포트폴리오 수익성·자산평가·리스크 반영 등

- 해당 팀은 Climate Change 팀으로, 한국인 컨설턴트는 부재하며, 인도계 수리남 출신 여성 컨설턴트가 담당 중
- 관련하여, 해당 팀에서 한국기금 활용 및 한국 컴포넌트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 한국이 제공 가능한 지식·레퍼런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후, 차년도 상반기 중 후속 연락 예정

- (②금융부문 디지털전환) 중남미 지역에서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안적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평가를 통해 금융 포섭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추진 중

* 공과금 납부 이력, 거래 데이터 등

- 동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신규 TC 사업으로, 현재 IDB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런칭 예정이며, 내부 승인 절차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디지털전환 지원, 대출·지급·결제

시스템, 대안적 데이터 활용, 신용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 등으로, 한국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또는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음.

- 현재로는 서울대학교 박소정 교수님과 함께 디벨롭 중이며, 교수님은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분 참여할 예정
 - 다만, 예산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단독 과제로 추진하기보다는 타 과제와 묶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포함하긴 하나, 연수 컴포넌트가 특정되진 않았음.
- (③혼합금융(Blended Finance)) 민간자금 단독으로는 리스크가 높은 기후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배출권 시장과 연계된 금융 흐름을 창출하는 방식
-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분야 리더십 제고를 위해 혼합금융 관련 국제 동향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공유
 - 다만, GKEDC의 주된 사업과는 다소 방향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해당 영역을 주력 협력 분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 필요
- (④전기차·e-모빌리티) 중남미 e-모빌리티 시장은 중국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차량뿐 아니라 인프라/운영 시스템과 결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 전기차·e-모빌리티 분야는 GKEDC가 이미 연수 경험이 있고, 지난 9월말에 캄보디아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 전기버스 시스템, 서울 티머니 등을 방문하는 연수 사례 존재
 - 중남미에서 버스 단독 수출은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티머니 등 결제·운영 시스템 탑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가능
- (⑤사이버보안) 동 분야는 DT팀 소관으로, 정부·공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주제를 다룸.
- 현재 GKEDC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DT 확산에 따라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⑥ESG 경영) ESG는 기업이 주요 주체가 되는 특성상, GKEDC의 기존 주제와는 다소 결이 다른 분야로 인식됨.

- 다만 PPP 등 논의 과정에서 일부 요소로 다뤄본 경험이 있으나, PPP 관련된 건은 PIMAC 쪽에서 많이 하고 있음.
- (⑦헬스케어) 한국 컴포넌트는 이미 종료된 상태로, 추가 협력 여지는 제한적인 상황
- (⑧블록체인) 24년도에 승인된 TC 건으로, 브라질에서 블록체인 법인·연구소를 기반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 중
- 한국 컴포넌트를 포함해야하는 요구조건에 따라 브라질 측이 한국의 신원인증·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GKEDC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고민 필요

4. WB 한국신탁기금 담당자 면담

☐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00-11:30

☐ (장 소) WB HQ, G 6-161 (10)

☐ (참 석 자) Kevin Kim 팀장(WB DFTPR)

☐ 주요 논의내용

○ 연수 운영 실무 애로사항 관련 조언

- (비자) 최근 법무부 차원에서 A-2 비자 등 외교관 비자의 남용을 문제 삼거나, 일부 국가의 경우 대사관 행정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출국 직전 비자가 반려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특히 초청장을 출국 한 달 전에 발송할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최소 입국 2개월 전부터 비자 신청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통역) 다국적 연수에서 동시통역을 진행할 경우 통역사 배치와 장비 세팅이 미흡하면 음향 간섭과 혼선이 발생 가능
 - 가령 아프리카 지역일 경우 영어·프랑스어 동시통역 체계가 필요하며, 통역사 간 마이크 관리와 현장 운영에 대한 사전 점검 권고
- (고위급 인사 참석 여부) 국내 유관기관 방문 관련하여 고위급 인사의 참석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행사 직전에 참석자

가 변경되는 사례 유의

- (일정 관리) 일부 해외 연수단의 경우 집결 시간 준수가 어려워 일정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일정상 최소 30분 이상의 버퍼시간 설정이 안전

○ KWPF 사업제안서 프로세스 안내

- 9월 초 공모 → 10월 말 접수(5~6주) → 12월 심사·쇼트리스트 구성 후 기재부 송부 → 기재부 검토 후 3월 최종 결과 통보(승인·규모 결정) → 이후 Fund Disbursement까지 약 3개월 소요
- 연수 프로그램의 실제 착수 시점은 9월로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6~8월(클로징 및 휴가 기간), 4월·10월(스프링·애뉴얼 미팅), 한국의 10월(국정감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 11월, 12월 초에 일정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통상 제출되는 사업제안서 수 대비 실제 승인 비율은 약 15% 수준으로, GKEDC 입장에서는 협력 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과 역할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 참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전문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거나 역할이 불명확한 제안의 경우에는 참여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력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펀딩 승인 이후 재논의’라는 조건부 입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권장
 - 사업 제안서 제출 시 한국 파트너 기관의 포컬 포인트를 지정해야하는 필수요건으로 인해 사전 확약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연간 수용 가능한 사업규모 고려 필요
 - 실질적으로 5월, 11월, 12월 초에 연수 사업이 집중될 확률이 높은 바, 연간 사업 수뿐만 아니라 월별·분기별 일정 분산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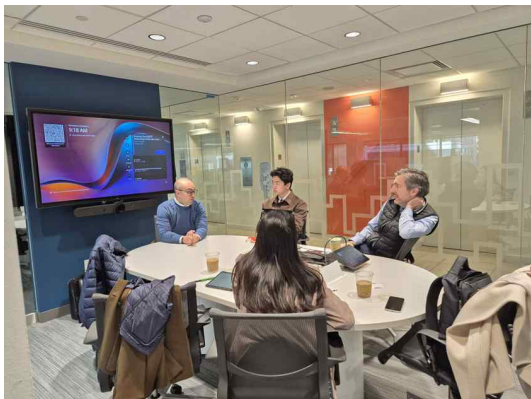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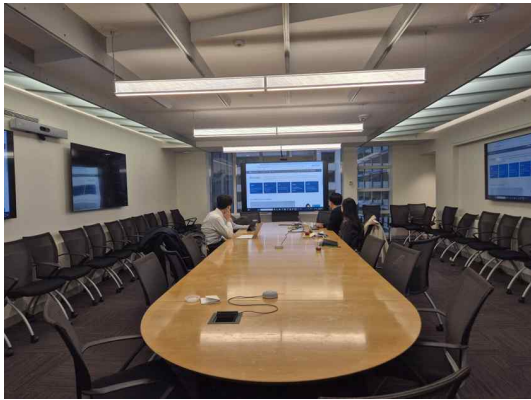
○ WB 내부 제도 변화 리스크 및 영향 공유

- 27년 1월 이후 STC 고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활용되던 단기 컨설턴트 중심의 사업 수행 방식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 GKEDC와 같은 기관형 수행체제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존재하나,

단독 수의계약은 5만불 미만 등 조건 제약이 있어 예산 설계 시 유의해야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조달 절차 필요

- 기관 차원에서 수용 가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요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협력 의사를 모호하게 표현할 경우 상대 기관이 무상 지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 협상 단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협의 초기부터 계약 필요성과 비용 발생 가능성을 분명히 전달하고, 컨설팅 기관 또는 전문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프레이밍하는 것이 중요

※ 유관기관 면담 사진



전시관 리노베이션 관련 사례조사

1. 스토리텔링 전시 기법 사례조사

□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14:00-17:00

□ (장 소)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 주요 전시내용

○ 전시개요 및 특징

- 1993년 정식 개관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기억을 보존하고, 나치 정권의 폭력과 증오에 대해 교육·기억·성찰을 촉진하는 공식적 국가 추모·교육 기관
- 1930년대 나치당 집권부터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실행과 종전 이후까지의 과정을 연대기적·사료 중심으로 종합 전시
- 사진, 유물, 개인 소장품, 문서, 영상, 구술 증언 등 폭넓은 1차 사료 자료를 통해 피해자와 생존자의 구체적 경험을 전달

Zone	주요 콘텐츠
Nazi Assault -1933 to 1939	- 1933년 독일에서 나치당이 집권한 이후부터 1933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의 과정을 조명 - 뉘른베르크 인종법 제정, 폴란드 침공 등 홀로코스트 전개 과정의 주요 전환점을 중심으로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제시
The 'Final Solution' -1940 to 1945	- 유대인에 대한 나치 정책이 게토화에서 집단 학살로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다루며, 학살 현장과 가스실로 이어진 박해의 구조와 실행 방식을 조명 - 소련 침공과 학살의 확산, 유대인 강제 이송 과정에 대한 사진 자료,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 등 1차 사료 중심으로 실상 제시
Last Chapter	- 1945년 연합군의 나치 독일 격파와 강제수용소 해방 과정을 중심으로, 구조 및 저항 활동과 홀로코스트 이후의 여파를 함께 조명 -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영상 증언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역사적 사건의 기억과 교훈을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성찰하도록 함

○ 시사점

- (스토리텔링 ①) 홀로코스트를 단일 사건이나 결과로 제시하지 않고, 나치의 집권 → 제도화된 차별 → 폭력의 일상화 → 조직적 학살로 이어지는 단계적 과정으로 서술하여, 대규모 인권 침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강해지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

- (스토리텔링 ②) 국가 권력과 제도적 폭력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방관·동조·저항 등 개인과 집단의 선택을 병치해 역사적 책임과 윤리적 판단의 문제를 관람객 스스로 성찰
- (스토리텔링 ③) 통계나 숫자 중심이 아닌, 개인 유품·사진·증언 등 1차 사료를 통해 피해자를 구체적 삶의 주체로 재현하고 익명화 하지 않아 당사자성이 돋보임
- (빛의 방향성으로 구성된 경험의 층위) 사건 당사자들의 사진이 밀집된 하부 공간은 어둡고 폐쇄적으로 구성하고, 천장으로 갈수록 점차 밝아지는 구조를 통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끝내 닿지 못했던 희망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했을 법한 억압과 생존의 감각을 공간적으로 표현함
- (공간 대비 활용) 게토화·강제이송·수용소 구간에서는 폐쇄적이고 밀도 높은 공간을, 해방 이후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배치하여 역사적 구면 변화가 시각적으로 인식되게 함
- (설명을 최소한으로 한 전시) 인위적으로 연출된 자극적 영상이나 극적인 음악적 효과는 배제하되, 문서·사진·현장영상·증언 등 당대의 기록이 지닌 사실성과 그로 인한 무게를 온전히 드러내어 관람객이 해석의 주체로서 사건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유도
- (전시 마무리) 최종 전시층 이후 바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증언 상영관과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람의 끝을 정보 습득이 아닌 기억과 추모의 시간으로 전환

□ 관련 사진





스토리텔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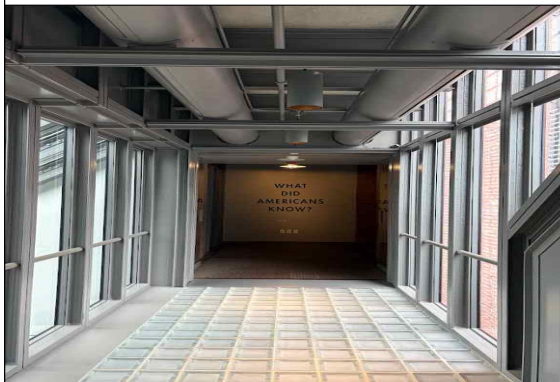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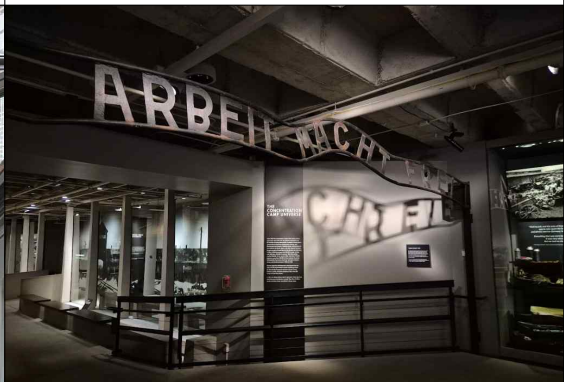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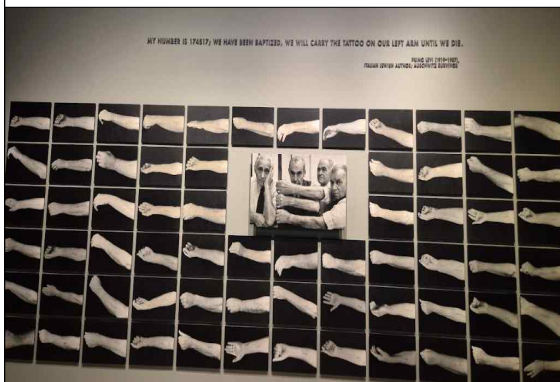
빛의 방향성으로 구성된 경험의 층위



공간 대비 활용(1)



공간 대비 활용(2)



설명을 최소한으로 한 전시(1)



설명을 최소한으로 한 전시(2)



전시 마무리(1)

전시 마무리(2)

2. 음성인식 기반 체험 전시 사례조사

□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00-12:00

□ (장 소) 플래닛 워드 (Planet Word)

□ 주요 전시내용

○ 전시개요 및 특징

- 워싱턴 D.C에 위치한 언어·단어·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체험형 박물관으로, 2020년 개관한 비영리·무료 전시관
- 19세기 공립학교 건물이었던 “프랭클린 스쿨”을 리노베이션 하여 언어를 단순한 학습대상이 아닌, ‘문화·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로 조명
- 연령과 배경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말하기·듣기·움직임·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전시를 핵심 특징으로 함

Zone	주요 콘텐츠
First Word	- 액자식 모니터를 통해 모국어를 배우게 되는 과정 탐구
Where do Words come from	- 전 세계 언어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화자 및 수어 사용자를 통해 각 언어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표현 방식을 소개하는 체험형 전시
The spoken World	- ‘말하는 단어 벽(Talking Word Wall)’을 중심으로, 현대 영어 어휘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배경이 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명
Lend me your Ears	- 프롬프트를 활용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설을 직접 낭독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전시로, 해당 연설이 시대를 초월해 명연설로 평가받는 이유와 언어적·수사적 특징을 함께 탐구

Word Worlds	- 단어를 ‘그리는 도구’로 활용하여 공간을 색채·소리·움직임으로 변화시키는 몰입형 전시
The library	- 책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연출을 통해 언어와 스토리텔링의 상상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Unlock the Music	- 방문객이 대표적인 대중음악 곡을 선택해 노래를 직접 부르는 참여형 체험을 통해, 작사가가 가사를 구성하고 히트곡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언어적·음악적 기법을 이해
Joking Around	- 유머를 주제로 한 전시 공간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웃음과 농담이 어떻게 언어적 장치로 작동하는지를 체험하고, 개인별·관계별 유머 감각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비교·탐색
I'm sold!	- 광고 언어를 주제로, 광고가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구매 욕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표현 기법과 설득 전략을 분석적으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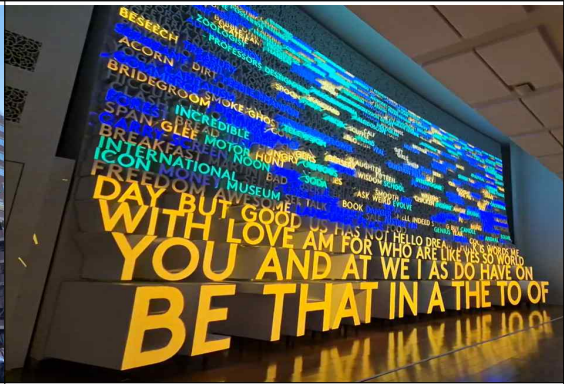
○ 시사점

- (주제 활용-언어의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나 학습 대상이 아닌, 문화·정체성·경제 활동을 형성하는 핵심 매개로 조명함으로써 언어의 다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장
- (체험 중심 언어 교육) 읽기·쓰기 중심의 전통적 언어 교육이 아닌, 말하기·듣기·노래·유머·광고 제작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언어 학습의 몰입도와 이해도 제고
 - 관람객의 발화에 반응하는 전시 구조를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맥락성과 효과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 (복합 감각 학습 설계) 대화, 음악 등 발화와 듣기 중심의 체험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이나 화면의 시각적 요소로 단어와 의미를 시각적으로도 인식하게 함으로써 언어 학습 효과 강화
- (직관적 연출) 연령, 언어 능력,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시로 포용적 학습 환경 제공
- (산업 연계) 음악, 광고, 연설 등 언어 기반 콘텐츠를 창작 산업과 연결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자원임을 제시

□ 관련 사진



건물 외관



언어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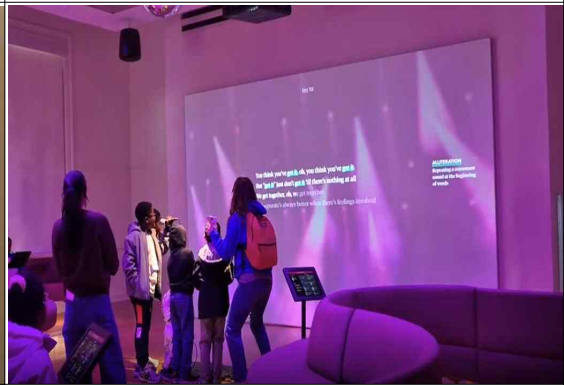
언어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2)



언어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3)



체험 중심 언어 교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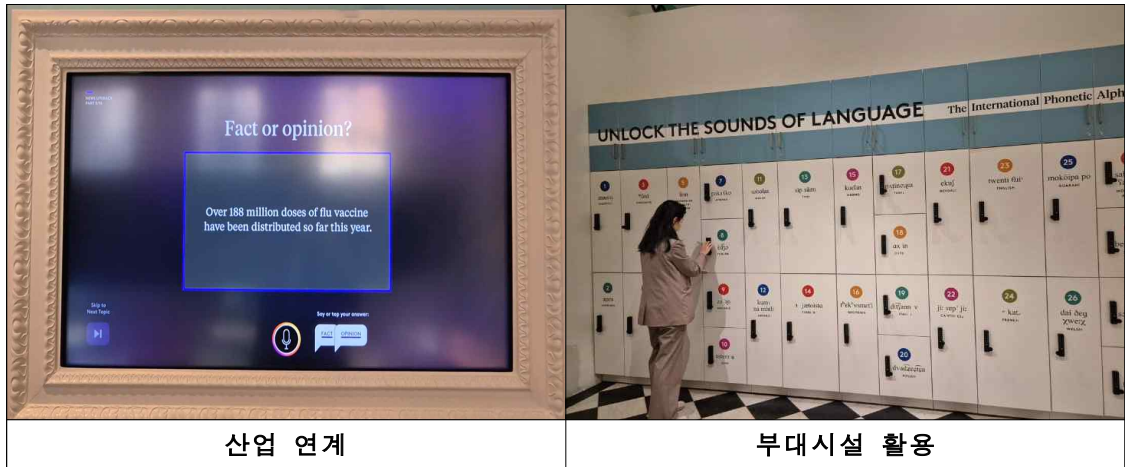
체험 중심 언어 교육(2)



체험 중심 언어 교육(3)



직관적 연출



산업 연계

부대시설 활용

3. 비해설 · 자율 감상형 전시 기법 사례조사

□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00-12:00

□ (장 소)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National Gallery of Art)

□ 주요 전시내용

○ 전시개요 및 특징

- 1941년 개관한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 미술사를 대표 작품 중심으로 보존·전시·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문화기관
- 서관의 고전적 양식과 동관의 현대적 건축 대비를 통해, 미술사의 시간적 흐름을 공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

Zone	주요 콘텐츠
East Building	- 20세기 이후 현대미술 및 근현대 조형예술 중심 전시 - 건축물 자체가 대표적 전시 요소로 활용되며, 실험적 전시 연출과 유연한 공간 구성이 특징
West Building	-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19세기 까지의 유럽 회화·조각 전시 -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라파엘로 등 서양 미술사의 핵심 작가 작품 소장 - 고전적 건축 양식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전시 연출을 통해 정제된 감상 환경 제공
Sculpture Garden	- 야외 조각 작품 전시와 공공 휴식 공간을 결합한 개방형 문화 공간 - 도심 속 일상적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미술 플랫폼 역할 수행
지하 연결 통로	- 서관과 동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미디어 아트·설치 작품을 전시하여 이동 자체를 하나의 관람 경험으로 구성

○ 시사점

- (중앙 정원을 활용한 공간 분리) 전시관 중간에 배치된 정원형 공간은 시각적 환기와 관람 피로 완화에 기여하나, 물비린내 등 환경적 요소가 발생할 경우 전시 몰입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
 - 다만, 관람객 간 작품에 대한 자발적인 대화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은 미술관을 감상 중심 공간을 넘어 소통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공공 담론의 장으로 확장하는 긍정적 기능
- (머무름 중심의 공간 구성) 과도한 해설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곳에 머물며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전체 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지 않더라도 완결감과 만족도를 제공
- (미술을 활용한 중립성 유지) 특정 시기의 사회 이슈나 정치적 해석을 전면에 두기보다, 작품의 형식·기법·미학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당시 시대상이나 환경 등을 관람객이 유추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사진



4. 인물 중심 전시 사례조사

□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5:00-16:00

□ (장 소) 미국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 주요 전시내용

○ 전시개요 및 특징

- 1800년 미국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 입법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하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기록 접근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 지식 기관
- 소장 자료를 활용한 상설·기획 전시를 통해 기록과 사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강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문화·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공 교육 기능을 강화
- 컬렉션을 완결된 자산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확장되는 공공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빙과 온라인 공개를 통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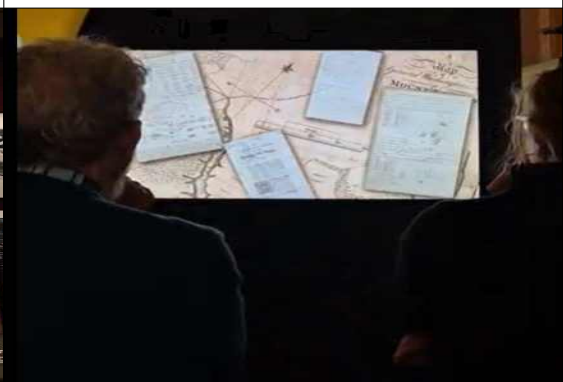
Zone	주요 콘텐츠
Collectiong Memories : Treasures from the Library of Congrass	- 사회 전체의 집단적 기억부터 개인의 삶 속 중요한 순간과 통과 의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억의 형태를 보존해 온 미국 의회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조명 - 문화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과 그 수단을 탐구하며, 기억이 어떻게 기록되고 전승되는지를 주제적으로 다룸
The Two Georges: Parallel Lives in an Age of Revolution	- 일반적으로 대립적 인물로 인식되어 온 George Washington(미국 대통령)과 George 3세(영국 왕)에 대한 통념과 신화를 재검토하고, 두 인물의 저술과 기록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 - 출생 시기가 불과 6년 차이인 두 인물의 평행적 삶을 비교·대조 하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대영제국, 계몽주의, 혁명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제시함
Thomas Jefferson's Library	- Thomas Jefferson(1743 - 1826)은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와 언어에 걸친 방대한 장서(藏書)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당시 북미 최대 규모의 개인 도서 컬렉션으로 평가됨 - 도서 컬렉션은 '기억(Memory)·이성(Reason)·상상(Imagination)'의 세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제퍼슨은 이를 각각 '역사(History)·철학(Philosophy)·미술(Fine Arts)'로 번역·재해석함 - 제퍼슨 개인 도서관의 도서들은 현재 Library of Congress 산하 희귀본·특별소장부(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에 소장되어 있으며, 미국 지적·문화사 형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시사점

- (기록의 개인화) 개인의 일기, 음성, 책, 과학 기구 등 다양한 기록을 국가 차원의 역사 자산으로 다룸으로써, 역사가 원인이나 사건 중심이 아닌 일상과 개인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다는 인식 제시
 - 개인 도서관의 형성과 확장을 국립도서관의 기원과 연결해 서술함으로써, 한 개인의 지적 축적이 국가 지식 인프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
- (인물 비교를 통한 이해) 대립 구도가 아닌 ‘평행적 삶’과 ‘공유된 맥락’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상징적 인물이나 신화적 존재가 아닌 개인으로 표현함으로써, 역사 인물에 대한 거리감 해소
- (아카이브의 현재성) 기록을 과거의 보존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확장·재해석 되는 살아 있는 자산으로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역할 강조
 - 의회도서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구조화하며 시민에게 해석의 권한을 돌려주는 공공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전시 모델을 제시
- (스토리 중심 시각 유도 연출) 메인 스토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각적 유물을 벽면에 대형으로 배치하고, 그 주변에 관련 유물을 연계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인식되도록 전시 구성
 - 이를 통해, 관람객이 설명 없이도 유물 간 관계와 맥락을 시각적으로 유추하며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 관련 사진



	
인물 비교를 통한 이해(2)	스토리 중심 시각 유도 연출(1)
	
스토리 중심 시각 유도 연출(2)	스토리 중심 시각 유도 연출(3)
	
아카이브의 현재성(1)	아카이브의 현재성(2)

5. 커뮤니티 참여형 전시 공간 벤치마킹

-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3:30-15:00
- (장 소) 아프리카 아메리칸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 주요 전시내용
 - 전시개요 및 특징
 -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과 역사, 문화, 기여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

으로 다루는 스미소니언 기관 소속의 박물관

- 노예제부터 현대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여정을 연대기적으로 보여 주고, 문화와 공동체 기여를 층별로 구분해 전시
- 건물 외관은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예와 전통을 반영한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시각적 맥락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짐
- 인종·문화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공공적 논의를 촉진하는 교육·전시 플랫폼으로 기능

Zone	주요 콘텐츠
Explore More!	- (Spirit in the Dark) Johnson Publishing Company 소장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흑인 종교 생활의 다양한 양상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조명하는 전시 - (Explore More) 체험·참여·창작 중심의 학습 방식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능동적 관람을 유도하는 교육형 전시 공간
Concourse	- (Slavery and Freedom) 미국의 공동 역사 핵심에 자리한 노예제와 자유의 복합적 관계를 조명하는 전시로, 미국 내 노예제의 역사와 함께 자유를 향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쟁이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 - (Defending freedom, Defining Freedom) 분리정책 시기 투쟁을 중심으로 그 핵심 양상을 조명하는 전시로, 이들이 가해진 제도적·사회적 도전 속에서도 생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스스로 형성해 나간 과정을 보여 줌 - (A Changing America)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 계층, 성별, 이주 경험이 중첩된 제약에 직면해 온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함께 조명하며, 인종적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향한 투쟁이 20세기를 넘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 - (A Century in Making) 시민운동, 연방 입법 제정,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신규 건축물 조성, 유물 수집 등 박물관 개관을 실현하기까지의 단계적·복합적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기록
Community Galleries	- (Sports) 경기장 안팎에서 활약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수들의 기여를 조명하는 전시로, 선수들이 신체 역량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한편, 코트와 필드를 넘어 법정, 이사회, 언론 현장에 이르기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실천해 온 사례를 함께 다룸 - (Power of Place) “사람은 장소를 형성하는 동시에 장소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장소는 개인과 공동체의 투쟁과 정신을 통해 확보되고 유지된다”는 관점으로 미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과 삶의 궤적을 조명 - (Double Victory) 미국 독립전쟁부터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군 복무 역사를 조명하며, 이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존중과 평가의 관점을 제시 - (Making a Way Our of No Way) 아프리카계 미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에서 영감을 받아, 공동체 기관과 시민운동을 통해 기회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창출해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집단적 실천과 대응 방식을 조명
Culture Galleries	- (Reclaiming My Time) 현대 흑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문화적 유산, 휴식하는 신체의 의미, 노동과 여가의 역사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시간·노동·쉼에 대한 흑인 경험을 동시대적 시각에서 재해석 - (Reckoning) 시각예술이 오랜 기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저항과 항의, 사회적 논평, 현실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온 방식을 중심으로, 예술과 사회적 대응의 관계를 조명 - (Taking the Stage) 연극·영화·텔레비전 분야에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로, 이들의 창의적 성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국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과 예술적 자유 및 동등한 재현을 향한 투쟁의 과정을 함께 제시 - (Musical Crossroads) 최초의 아프리카인들이 미주에 도착한 시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음악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 - (Cultural Expressions)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문화를 소개하는 순환형·체험형 도입 공간으로, 관람객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시사점

- (공간 동선을 통한 체감 설계) 엘리베이터로 하강하며 과거로의 시간 이동을 연출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노예제와 강제 이주라는 출발점에서 체감하도록 하고, 이후 지상으로 이동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쟁·변화·성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공간 연출
- (커뮤니티 주체성 기반 주제 확장)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역사와 경험을 주변적 서사가 아닌, 미국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구성해온 핵심 서사로 제시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기억을 공공의 역사로 확장
- (커뮤니티 주체성 강조) 노예제, 분리정책, 차별이라는 구조적 폭력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에 대응한 교육·종교·문화·창작 활동을 핵심 서사로 강조하며 ‘피해의 역사’가 아닌 ‘대응의 역사’로 프레임 전환
- (경험의 구조화) 인종 차별을 단일한 경험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층, 성별, 이주, 종교, 지역성 등의 요소가 중첩되는 구조적 조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을 다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는 분석적 틀 제공

- (문학적 표현 활용) 음악, 공연 예술, 스포츠,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시민권·자유·평등 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제도 정치나 법·시민운동 중심의 시민권 서사를 넘어 일상과 문화 차원의 사회 변화를 조망
- (참여·체험 기반 전시) 전시와 연계된 체험형·멀티미디어·퍼포먼스 기반 교육공간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와 대화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박물관을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닌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공공 인프라로 활용
 - 최초 아프리카인의 도착부터 재즈·힙합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음악의 역사와 영향력을 조명하여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
- (시간선 확장) 과거의 성취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21세기에도 지속되는 인종적 형평성과 사회 정의의 과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전시를 ‘완결된 역사’가 아닌 현재진행형 질문과 성찰의 장으로 활용
- (다문화 사회, 국제 협력 맥락에서 적용) 특정 국가·집단의 경험을 보편적 인권, 자유, 존엄의 문제로 확장해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사회 정책, 인권 교육, 국제기구 협력 사업에서 참고 가능한 전시 모델 제공

□ 관련 사진





주체성 강조(1)



주체성 강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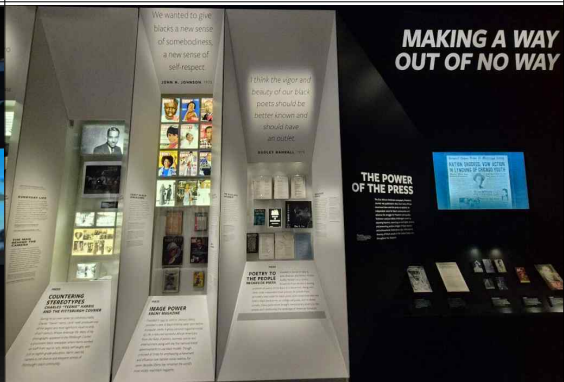
주체성 강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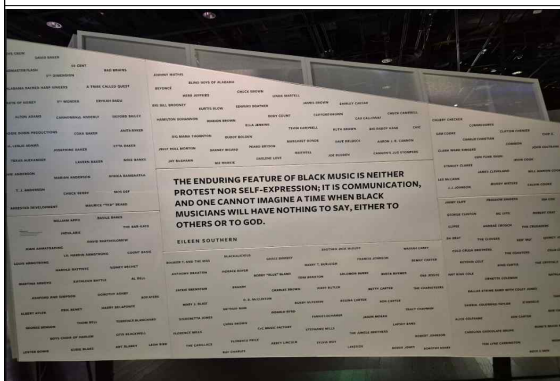
경험의 구조화(1)



경험의 구조화(2)



문학적 표현 활용(1)



문학적 표현 활용(2)



참여·체험 기반 전시(1)

	
참여·체험 기반 전시(2)	참여·체험 기반 전시(3)
	
참여·체험 기반 전시(4)	시간선 확장

6. 인터랙티브 체험 전시 기법 사례조사

-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5:30-17:00
- (장 소) 국립 자연사 박물관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 주요 전시내용
 - 전시개요 및 특징
 - 1910년 개관한 스미소니언 산하 기관으로, 지구의 자연사와 생명 다양성, 인류의 기원과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룸
 - 연구·수집·보존·전시·교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과학적 지식의 축적과 대중적 이해 확산을 동시 목표로 함
 -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 변화, 인간 활동의 영향 등 현대적 환경 이슈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 제시하고 체험형 전시, 디지털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을 통해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일반 대중과 학생에게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Zone	주요 콘텐츠
African Voices	-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세계 문화와 역사에 미쳐 온 영향과 그 지속성을 조명하는 전시로, 아프리카를 단일 문화권이 아닌 다층적·역동적 사회로 제시 - 아프리카 각지의 개인 목소리를 중심으로, 속담·음악·기도문·문헌 자료 등을 통해 모두의 삶과 사고방식을 입체적으로 전달
Cellphone: Unseen Connections	- 휴대전화가 개인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조명하여, 단일한 개념이나 기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휴대전화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는 전시 - 휴대전화를 개인적 소통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환경, 글로벌 노동 체계, 보이지 않는 인프라 네트워크와의 연결 맥락 속에서 재해석
David H. Koch Hall of Fossils – Deep Time	- 지구 형성 초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심층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생명과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명 - 지구의 탄생을 출발점으로, 고대 생태계와 생명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며, 과거의 변화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했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탐구
David H. Koch Hall of Human Origins	- 인간의 가장 가까운 조상과 친족 종을 소개하며, 인간이 다른 종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 - 관람객이 직접 비교·탐색하며 인간 진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
Dazzling Diversity	- 스미소니언 도서관·기록보관소(Smithsonian Libraries and Archives) 소장 초기 자연사 도서를 중심으로, 곤충 세계의 다양성과 과학적 기록의 가치를 조명 - 사적 자연사 서적에 수록된 과학 삽화를 통해 곤충 분류와 서식 환경을 소개하고, 과거의 과학 지식이 오늘날 생물다양성 연구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
Kenneth E. Behring Family Hall of Mammals	- 포유류의 공통적 특징과 진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약 8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난 약 2억 2,500만 년 동안 포유류 계통이 겪어 온 진화 과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양상을 포괄적으로 제시
Lights Out: Recovering Our Night Sky	- 인공조명이 야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빛 공해가 인간과 야생동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과학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 - 별 관측 감소라는 시각적 문제를 넘어, 생태 교란·인간 건강·문화적 경험의 변화 등 빛 공해의 복합적 영향을 제시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이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
NASA’s Earth Information Center @ NMNH	- 스미소니언과 NASA의 공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구 시스템과 기후 변화에 대한 최신 과학적 발견을 시각화된 데이터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소개 - 세 가지 주요 인터랙티브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위성 궤도 경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데이터 출처가 어떻게 통합·해석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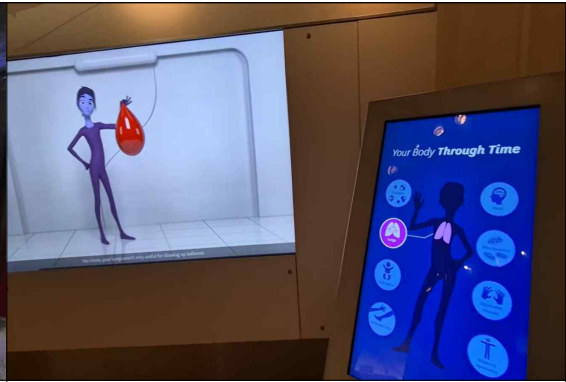
○ 시사점

- (주제 전개 방식) 자연사를 과거의 기록이 아닌, 기후 변화·환경·인류 등을 이해하는 현재적 기준으로 제시하며 공공 지식 공간으로 기능
- (질문 중심 메시지)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인간 활동이 자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을 함께 질문하며 관람객이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인터랙티브 활용①) 인터랙티브를 흥미 유발 장치 뿐 아니라, 실물과 사고를 연결하는 보조 도구로도 사용됨
 - 휴대폰 모형 화면을 활용한 대화형 인터랙티브 전시는 관람객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 구조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돕고, 특히 아동 관람객의 흥미와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
 - 관람객이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질문을 품고 전시관을 나가게 하여 전시 경험이 전시 밖 사고로 이어지도록 설계
- (인터랙티브 활용②) 리스닝 스테이션을 통해 사건 당사자의 언어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 음악, 환경음을 체험하게 하여 현장감 증대
- (메인 오브젝트 중심) 각 전시실 마다 시선을 즉시 끌어당기는 대표 오브젝트를 전면에 배치하여 설명을 읽기 전부터 전시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함
- (연구 현장의 전시화) 전시관 내부에 유리벽으로 과학실(Fossil Lab)을 배치하여, 연구원이 표본을 다루고 분석하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관람객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함
 - 결과물 만이 아닌,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전신 콘텐츠로 전환하며 고정되지 않은 콘텐츠로 사용
 - 현장 자체가 인터랙티브 전시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관람객들의 흥미 유발에 효과적

□ 관련 사진



주제 전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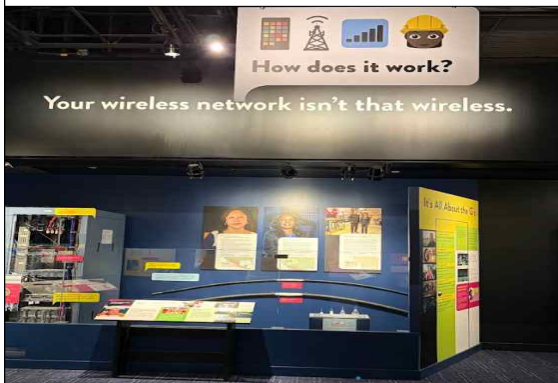
인터랙티브 활용 (1)



인터랙티브 활용 (2)



메인 오브젝트 중심



질문 중심 메시지



연구 현장의 전시화(1)



연구 현장의 전시화(2)



연구 현장의 전시화(2)